

'알롱제' 시야오 왕(Xiyao Wang) 개인전



[서울=뉴스시스] 박진희 기자 = 시야오 왕(Xiyao Wang) 작가가 4일 서울 강남구 페로탕 도산에서 열린 개인전 '알롱제' 기자간담회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 확장성이 느껴지는 작가의 작품은 역동성과 커다란 빈 공간 속에 대담한 신체적 제스처로 표현되어 뚜렷한 존재감 또는 지각적 정동(affect)을 전달한다. 전시 제목 '알롱제'는 발레 용어로 늘리고 크게 펼치는 동작을 말한다. 2023.07.04. pak7130@newsis.com
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I20230704_0019944758

'알롱제' 시야오 왕(Xiyao Wang) 개인전 여는 페로탕 도산



[서울=뉴스시스] 박진희 기자 = 시야오 왕(Xiyao Wang) 작가가 4일 서울 강남구 페로탕 도산에서 열린 개인전 '알롱제' 기자간담회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 확장성이 느껴지는 작가의 작품은 역동성과 커다란 빈 공간 속에 대담한 신체적 제스처로 표현되어 뚜렷한 존재감 또는 지각적 정동(affect)을 전달한다. 전시 제목 '알롱제'는 발레 용어로 늘리고 크게 펼치는 동작을 말한다. 2023.07.04. pak7130@newsis.com
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I20230704_0019944755

'역동성과 확장성'을 표현한 시야오 왕 '알롱제' 개인전 여는 페로탕 도산



[서울=뉴스시스] 박진희 기자 = 페로탕 도산파크는 4 일 서울 강남구 페로탕 도산에서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야오 왕(Xiyao Wang) 개인전 '알롱제'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. 역동성과 확장성이 느껴지는 작가의 작품은 커다란 빈 공간 속에 대담한 신체적 제스처로 표현되어 뚜렷한 존재감 또는 지각적 정동(affect)을 전달한다. 전시 제목 '알롱제'는 발레 용어로 늘리고 크게 펼치는 동작을 말한다. 2023.07.04. pak7130@newsis.com
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I20230704_0019944753

발레에서 영감을 받은 시야오 왕 개인전 '알롱제'



[서울=뉴스시스] 박진희 기자 = 페로탕 도산파크는 4 일 서울 강남구 페로탕 도산에서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야오 왕(Xiyao Wang) 개인전 '알롱제'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. 역동성과 확장성이 느껴지는 작가의 작품은 커다란 빈 공간 속에 대담한 신체적 제스처로 표현되어 뚜렷한 존재감 또는 지각적 정동(affect)을 전달한다. 전시 제목 '알롱제'는 발레 용어로 늘리고 크게 펼치는 동작을 말한다. 2023.07.04. pak7130@newsis.com
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I20230704_0019944757

시야오 왕 '알롱제' 개인전 여는 페로탕 도산



[서울=뉴스시스] 박진희 기자 = 페로탕 도산파크는 4 일 서울 강남구 페로탕 도산에서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야오 왕(Xiyao Wang) 개인전 '알롱제'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. 확장성이 느껴지는 작가의 작품은 역동성과 커다란 빈 공간 속에 대담한 신체적 제스처로 표현되어 뚜렷한 존재감 또는 지각적 정동(affect)을 전달한다. 전시 제목 '알롱제'는 발레 용어로 늘리고 크게 펼치는 동작을 말한다. 2023.07.04. pak7130@newsis.com
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I20230704_001994474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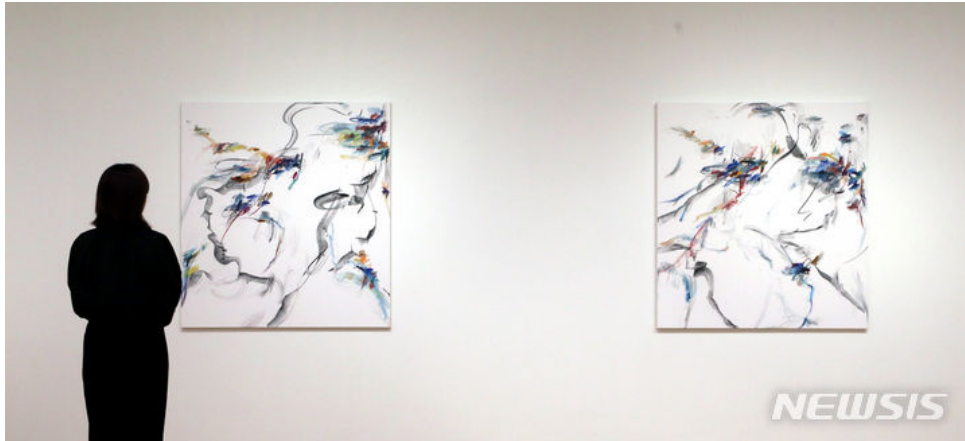
'알롱제' 시야오 왕(Xiyao Wang) 개인전



[서울=뉴스시스] 박진희 기자 = 시야오 왕(Xiyao Wang) 작가가 4일 서울 강남구 페로탕 도산에서 열린 개인전 '알롱제' 기자간담회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 확장성이 느껴지는 작가의 작품은 역동성과 커다란 빈 공간 속에 대담한 신체적 제스처로 표현되어 뚜렷한 존재감 또는 지각적 정동(affect)을 전달한다. 전시 제목 '알롱제'는 발레 용어로 늘리고 크게 펼치는 동작을 말한다. 2023.07.04. pak7130@newsis.com
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I20230704_0019944756

'역동성과 확장성'을 표현한 시야오 왕 '알롱제' 개인전 여는 페로탕 도산



[서울=뉴스시스] 박진희 기자 = 페로탕 도산파크는 4 일 서울 강남구 페로탕 도산에서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야오 왕(Xiyao Wang) 개인전 '알롱제' 기자회견담회를 갖고 주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. 역동성과 확장성이 느껴지는 작가의 작품은 커다란 빈 공간 속에 대담한 신체적 제스처로 표현되어 뚜렷한 존재감 또는 지각적 정동(affect)을 전달한다. 전시 제목 '알롱제'는 발레 용어로 늘리고 크게 펼치는 동작을 말한다. 2023.07.04.
pak7130@newsis.com
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I20230704_0019944754
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I20230704_0019944759

시야오 왕 '알롱제' 개인전 여는 페로탕 도산



[서울=뉴스시스] 박진희 기자 = 페로탕 도산파크는 4 일 서울 강남구 페로탕 도산에서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시야오 왕(Xiyao Wang) 개인전 '알롱제' 기자회견담회를 갖고 주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. 역동성과 확장성이 느껴지는 작가의 작품은 커다란 빈 공간 속에 대담한 신체적 제스처로 표현되어 뚜렷한 존재감 또는 지각적 정동(affect)을 전달한다. 전시 제목 '알롱제'는 발레 용어로 늘리고 크게 펼치는 동작을 말한다. 2023.07.04. pak7130@newsis.com
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I20230704_0019944750

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I20230704_0019944751